

양돈 농가의 경영효율성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배분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화된 고용 노동을 활용하거나, 농가의 시장정보 및 장부 기장 활용도 제고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시장의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충분히 활용하여 농가 경영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회계장부 관리를 통한 개별 농가의 생산비 파악이 필요하다. 또한 임노동에 따른 배분효율성 개선 위해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활용한 관리가 필요하다. 기술효율성 하락 원인은 순수기술효율성의 감소이므로 고용노동 및 위탁노동의 실시로 전문화된 인력을 저렴하게 활용하거나, 농기계 성능 개선과 농가의 농기계 활용 능력 제고가 필요하다.

양돈 농가는 전체 생산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7개 주요 항목의 비용이 상승하여 농가 배분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요 생산비 항목 중 사료비 등의 상승은 개별 농가 차원에서 대응하기 힘든 요인에 의한 결과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대농구비비율과 고용노동비율이 높을수록 비용효율성이 감소하였음을 볼 때, 고용노동은 대리인 문제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고용노동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효율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농가 고령화 심화로 대농구, 즉 농기계 사용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농가는 고가의 농기계를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농기계를 공동구매하거나 농기계임대사업을 이용하여 농기계 사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책당국에서는 농가가 농기계 사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농기계임대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3) 양계 농가 경영효율성 개선 방안

양계 농가의 경우 다른 축종과 달리 사육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사육규모의 확대는 농가의 비용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이윤효율성 분석에서는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반면 최근 AI 등의 가축질병과 관련하여 규모화에 따른 폐해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규모 확대와 함께 동물복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육계의 밀식사육은 기술효율성을 향상시켜 비용효율성을 개선시키지만, 산란계의 경우 밀식사육이 이윤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었다. 또한 HACCP인증은 산란계 농가 경영 개선에 긍정적 기여를 한다고 분석되었다.

바. 특작 : 인삼, 느타리버섯 농가 경영효율성 개선 방안

(1) 인삼 농가 경영효율성 개선 방안

인삼의 조수입 증가율은 연평균 5.5%로 생산비 증가율(3.0%)보다 높다. 최근 5개년 상위 7개 생산비 항목은 모두 상승추세에 있다. 대농기구상각비의 상승률이 가장 높으며, 제재료비가 전체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18.0%)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인삼 농가의 경우 효율적인 고용노동력 활용 방안 제고 필요하다. 전체 노력비 중 고용노동비의 비중이 높은 농가가 경영효율성이 높다. 인삼 품목의 특성상 재배기간이 길며 재배관리부터 출하할 때까지 많은 노동력이 필요함을 감안할 때,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 고용노동자 관리 및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효율적 활용 필요하다.

적정량의 농약 사용도 중요하다. 10a당 농약비는 비용측면의 경영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